

아파트를 둘러싼 3개 공원 4만7천여 m² (14,281py) 공원으로 둘러싸인 한신더휴의 쾌적한 자연환경

특장점 _ 공원으로 둘러싼 쾌적한 단지

단지 인접 공원 배치도



코로나 이후 더 선호되는 공원인근 아파트

주거 쾌적성 높은 '에코 아파트'... 몸값도 청약도 高高

국토일보

2021년 10월 21일

주거 쾌적성이 높은 에코 아파트가 인기다.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여건에서도 환경여건이 1순위 고려대상으로 급부상 해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올해 5월 발표한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60대까지 전국 남녀 총 302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산림파괴'와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 54.4%와 비교해 현격하게 오른 수치다.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해 환경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거여건 선택 조건에도 크게 반영됐다.

올해 3월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6%가 주거공간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쾌적성, 공세권, 숲세권(공원, 녹지 주변)'을 꼽았다.

이는 교육환경(4%), 직주근접(4.9%), 교통 편의성(12.7%) 등 전통적인 주거 선호 요인을 넘어선 것이다.

청약시장에서도 에코 아파트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뒀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청약이 실시한 단지 가운데, 청약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민간분양) 대부분이 주변으로 강·호수·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에코 아파트로 조사됐다.

2019 국민여가 활동조사보고서

주택산업연구원 2025 미래 주거 트렌드 보고서

Q. 여가시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1. 식당(36.2%)
2. 아파트 내 공터(24.1%)
3. 생활권 공원(21.9%)
4. 카페(18.8%)
5. 대형마트(18.5%)

Q. 미래 주거선택 요인?

1. 쾌적성(35%)
2. 교통 편리성(24%)
3. 생활편의시설(19%)
4. 교육환경(11%)
5. 직주근접(7%)

※ 상기 공원의 위치 및 면적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6-2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포함 한신더휴 펜타시티 A2블록과 A4블록은 각각 인허가를 득한 개별 사업장으로 청약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